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3차 회의

모두 발언

-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 관련 -

2026. 4. 9(木). 15: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석 원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덕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신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위원 여러분*,

* (참석) 최대우^{한국외대} 교수, 최현자^{서울대} 교수, 유경원^{상명대} 교수, 최경진^{가천대} 교수,
문영배^{前 나이스평가정보} 연구소장, 정성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진^{금융연} 금융소비자실장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개발에 힘써주신
신용정보원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금융의 평가 기준과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현장을 찾았을 때,
소상공인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담보와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심사로는
사업의 성장성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금융 현장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소상공인에게 보다 적합한 신용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의 확대가 아닙니다.

금융이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즉, 담보와 과거에 의존하던 금융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미래형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II. 신용평가의 의미와 변화

신용평가는 결국,
자금을 공급했을 때,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중국 전국시대(BC 3세기) 상인 '여불위(呂不韋)'는,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와있던
진(秦)나라 왕족 '영이인'이란 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황금 5백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영이인은 훗날 '진 장양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바로 '진 시황제' 입니다.

여불위는 영이인을 과거나 담보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인 맥락을 통해
미래 성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은,
손실 위험을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즉, 담보와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평가에 의존해 왔습니다.

당장은 손쉬운 방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성장 가능성과
맥락적 정보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AI를 활용한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까지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직관이나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평가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금융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기반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실제 금융 의사결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입니다.

Ⅲ.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편방안

저희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 금융은
“담보”가 아니라 “데이터”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대환대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융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이력 정보 뿐 아니라,
매출, 업종, 상권, 사업 특성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성장등급**을
대출심사에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승인, 한도, 금리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모형의 개선이 아니라,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금융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선, 주요 은행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금융은 자금의 흐름을 통해
경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자금은
담보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가능성을 향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도입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는
그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가
우리 금융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